

투데이

농촌 貧富 양극화 도시보다 심각

농가소득 7462만원 vs 608만원 최대 12배 차이

황주홍 의원 “생산성만 중시… 농가경영은 파탄”

지난해 농가 간 소득격차가 최대 12.3배에 달하는 등 도시지역 가구보다 농촌지역의 빈부 격차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황주홍(장흥·강진·영암) 의원이 1일 통계청으로 제출받은 ‘소득 5분위별 농가·비농가 소득 통계자료’(2007년~지난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농촌 가구를 소득 규모에 따라 5단계로 나눴을 때 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상위 20%)의 연평균 소득은 7462만원으로 2007년 7585만 원에 비해 1.5% 감소했다.

반면,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하

위 20%)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2007년 762만원에서 지난해 608만원으로 20.2% 급감했다.

이에 따라 5분위 소득을 1분위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도 2007년 9.9배에서 지난해 12.3배로 확대돼 농가 간 소득격차가 더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상·하위 농가 소득 모두 수입이 감소하기 했지만, 하위 소득 농가의 수익률 감소 폭이 커기 때문에 분석된다. 농가 소득 5분위 배율은 2007년 9.9배에서 2008년 8.6배로 잠시 축소 됐으나 2009년 8.9배, 2010년 9.7배, 지난해 12.3배 등으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도시 근로자 가구의 소득 5분위 배

율은 2007년 5.9배, 2008년 6.0배, 2009년 6.0배, 2010년 5.8배, 지난해 5.9배 등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도시지역 상위 20%의 소득은 8932만원, 하위 20%의 소득은 1519만원이다.

황 의원은 “정부가 농업의 대형화·기업화만 외치면서 중소농가 소득의 증가를 외면한 결과 도시지역보다 더 심각한 부의 양극화 현상이 벌어졌다”며 “농업 생산성만을 중시한 결과 식량 안보에 직결되는 농가 경영은 파탄에 이르렀다. 소득 보전과 농촌 지역 복지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전체 농가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 농가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직거래 확대, 농산물 가공 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을 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우당탕탕 아이쿠’ 경찰청 홍보·‘아기고릴라 둥동’ 20개국 수출

문화콘텐츠 산업, 광주 먹여 살린다

광주시가 민선 5기 들어 집중 육성 중인 문화콘텐츠 산업이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까지 개척하는 등 광주를 먹여살릴 성장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 개관한 광주 CGI(컴퓨터영상합성 기술·Computer Generated Imagery)센터는 영화 ‘도둑들’과 ‘미스터고’ 등을 제작 지원한데 이어 현재 150억원 규모의 서극 감독 애니메이션(3편) 공동제작 등 총 11개의 대형프로젝트를 유치·협의 중이다.

또 지난 2010년 12월 전국 자체 단체 중 처음으로 개소한 광주スマ트모바일앱 개발지원센터에서 는 모바일 앱 기획 및 실무설계, 하이브리드 앱 개발과정 등 무료 교육과정을 진행해 100여명의 앱 개발자를 양성하는 등 앱 개발 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

고 있다. 앱센터를 통해 22개(62명)가 창업했으며, 입주 개발사들도 50여건의 앱을 개발해 수익을 내고 있다.

특히 광주시의 문화콘텐츠업체를 대상으로 한 창작·기획부터 제작·마케팅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지원사업도 결실을 맺고 있다.

광주시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우당탕탕 아이쿠’(마로스튜디오)

는 국내 최초 어린이 안전교육 애

니메이션(3편) 공동제작 등 총 11개의 대형프로젝트를 유치·협의 중이다.

또 지난 2010년 12월 전국 자체 단체 중 처음으로 개소한 광주スマ트모바일앱 개발지원센터에서

는 모바일 앱 기획 및 실무설계, 하이브리드 앱 개발과정 등 무료 교육과정을 진행해 100여명의 앱 개발자를 양성하는 등 앱 개발 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

프로그램 부분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같은 광주시의 성과와 각종 노

력 등에 힘입어 국내 굴지의 영화 시각 효과(VFX) 전문 제작업체인 쿠디지털아이디어와 쿠모파스튜디오가 광주로 옮겨오는 등 총 71개 기업을 유치·신설하고 37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오는 2014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완공되면 광주의 문화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 정여배 문화산업과장은

“아시아문화전당에 이어 한국콘

텐츠 전진원, 한국전파진흥원 등

문화콘텐츠 관련 기관들이 광주로

몰려오고 있다”면서 “문화콘텐츠

산업의 집중 육성과 지원을 통해

광주를 문화콘텐츠의 대표도시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박진기자 lucky@kwangju.co.kr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대출금리: 연5.5% ~ 대출금액: 1,000만원~8,000만원

공무원 대출

과다대출·캐피탈·저축은행·대부업체의 고금리를 이용 중인 공무원을 위한 연5.5% 대출

이런분은 꼭!!
연락주세요
·과다대출로 추가대출이 어려우신 분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실 분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는 분

현재의 부채상황을 리모델링 해 드립니다
예 시: 행정6급이고 연봉이 5,000만원인 공무원의 경우입니다.

부채 리모델링 전 연간 이자비용이 3,600만원이었으나 리모델링 후 연간 이자비용이 1,445만원으로 줄어들며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본 실제 사례입니다. 부채리모델링에 관심 있는 분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세요.

연5~15% 연체 추가비용 없음

하나로 채무통합 011-705-2230

등록번호 : 2011-3430067-25-5-00028 주소 : 대구 서구 평리 215. 302호

철학연수원

수강연수 강의료 무료!

현재 무속인 역술철학 운영자 환영!

수강증목

사주명과 기초부터 완결까지 6개월
자비두수 천문별빛의 군결과 인간의 운명, 노력의
결실과 숙명의 한계성 강의, 경천동지할
비술의 세계. 기초에서 완결까지 6개월
풍수지리 실전풍수의 윤양백비결, 땅의 성정이 실로
지향하는 바가 정녕 무엇이며, 그 진실과
허상을 증명해 간다. 기초에서 완성까지
6개월

禪의 길

조작되는 인간의 뇌파와 우주관, 과연 도닦는 일도
숙명인 것인가? 道의 구극적인 진정은 닦고 가공해서
만들어 내는 예술품이 아니다. 닦고 가공해서 만들어
내는 예술품이 아니다. 인식이 증명되는 과정의 지혜강의

수강신청 및 강의시간(포괄적 강의) 자격제한 없음
매주 수 토 일 오후 2~5시

강의장소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95-2
(광주대 상류 소쇄원 주차장 아래 하천변)
철학연수원(진짜곰탕집)

TEL 061-383-7222 HP 010-4178-8830

강사 柳無山居士

신용카드 한도 구매

사용한도만큼 현금으로!

상품권 매매 매입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법인 개인 출장 가능!

현금필요하신분

3분이내 즉시해결!

H. 010-2082-6353

TEL. 062)383-6364

남사원모집

나이가 몇 살이든, 어느 학교를 나왔건, 지난날 무슨 일을 했건, 능력이 있는 아무도 안 알아주는 사람.
기회가 주어진다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모르는 건 배우면서 해보겠다는 사람.
이어서와 자기 소개서를 써서 보내주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5

성공을 부르는 말하기 기술 <http://www.kleader.kr>

스피치 리더십 과정

제24기 수강생 모집!!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 스피치 교실

제 3기 수강생 모집

맞춤형 스피치교육

스피치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도 올라가게 되며 성격이 적극적
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절실히 됩니다.

교육자·가맹점 모집 중
062)222-2255 /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연탄 온기만큼 따뜻한 미소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이 8.5도까지 떨어진 1일 광주시 북구 운암1동주
민센터 직원들과 새마을 부녀회원들이 저소득층 장애인 가정에 연탄
을 나르고 있다.

/김진기자 jeans@kwangju.co.kr

헐리우드 스타들 여수서 만난다

내년부터 美 무비가이드 시상식 개최

내년부터 매년 헐리우드 스타들을
여수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

여수시는 “미국 무비가이드사
발행인인 테드베르 박사 일행과
무비가이드 어워드코리아 여수 개
최회를 어워드 코리아 행사를 추진
하며, 여수시는 행사주최를 위한
참가자 안내와 관광, 흥보 등 행정
적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에서 개최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무비가이드사

는 조직동원 행사준비 등 매년 개
최될 어워드 코리아 행사를 추진
하며, 여수시는 행사주최를 위한
참가자 안내와 관광, 흥보 등 행정
적 지원을 한다. 앞서 테드베르 박
사 일행은 ‘2013 무비가이드 어웨

드 코리아 개최’ 장소 물색을 위해
지난 31일 여수를 방문, 숙박시설
과 박람회장, 오동도, 예술마루 등
관련시설을 둘러봤다.

한편 무비가이드사가 주관하는
시상식은 매년 2월 헐리우드에서
10일간 개최되는 국제 영화제로
세계적인 유명 배우들이 다수 참
석하는 권위 있는 시상식이다.

/김창희기자 chkhim@

대법관 14인 구성 완료… 다시 여성 복수체제로

‘서울법대·고위법관 출신 주류’ 기준을 여전

법대 출신 김창식
(56·13기) 대법관 제외하면 12
명이 서울대 법대
를 졸업한 동문이
다. 고법부장 이
상 고위 법관 출
신이 12명이고 대
부분 법원행정처에서 주요 보직 간부
를 거쳤다.

학자 출신인 양창수(59·6기) 대법
관과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변
호사 개업을 한 박보영 대법관을 빼
면 절대다수가 엘리트법관 출신으로
짜여져 고위법관 편중 현상은 더 심
해진 셈이다.

/연합뉴스